

영유아사교육포럼 11차 연속 토론회

■ 제9차 토론회

영유아사교육의 학습효과와 정서적·사회적 발달 영향을 살핀다

주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2013. 11. 13. (수) 오후 7시

■ 머리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올해 초 영유아사교육포럼을 창설하여 영유아 사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토론회를 8회에 걸쳐 가졌습니다. 영유아사교육포럼의 활동과 함께, 영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언론의 조명이 있었고, 9월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유아사교육 대책을 마련하고 유아사교육을 따로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등 사회적 관심이 모였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은, 영유아사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영유아 시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 정서, 사회성, 인지 등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기 위한 전인교육이 필요한 시기이고, 이에 따라 공통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서도 기본 생활 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유아 사교육 상품은 지적 발달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발달단계를 뛰어넘은 학습을 시키는 등, 영유아 교육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유아 사교육의 ‘선행교육’ 측면, ‘과잉교육’ 측면 모두 영유아 발달 단계에는 맞지 않으며, 이것이 학습효과의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은 영유아사교육이 가지는 학습효과와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발제는 그간 아동의 사교육과 우울증 등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해온 한림대성심병원 홍현주 박사와, 영유아사교육의 학습효과와 정서적, 사회적 발달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한 이슬기 연구원이 진행하며, 소아정신과 의사, 언어치료사, 유아교육과 교수 등이 참여해 영유아사교육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토의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목 차

발 제

- 제1발제: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1
“영유아사교육의 학습효과와 정서적·사회적 발달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분석”
- 제2발제: 홍현주 (한림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 교수) 45
“영유아에서 지나친 인지학습의 정신의학적 영향”

논 찬

- 제1논찬: 이부미 (경기대 유아교육과 교수) 51
- 제2논찬: 박진균 (소아정신과 전문의) 53
- 제3논찬: 노성임 (푸른미래 언어치료센터 원장) 57

■ 제1발제

영유아사교육의 학습효과와 정서적, 사회적 발달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 분석

이슬기(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목차

I. 들어가며

II. 영유아사교육의 개념과 발달 적합성의 문제

III. 전반적 영유아사교육의 학습효과와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의 영향

1. 전반적 영유아사교육의 학습효과
2. 전반적 영유아사교육이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3. 전반적 영유아사교육이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IV.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학습효과와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의 영향

1.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학습효과
2. 영유아 영어사교육이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V. 논의 및 결론

I. 들어가며

최근 우리 사회에는 영유아대상 학원, 학습지 등의 교재, 교구 등 점차 다양한 종류의 영유아사교육 상품이 등장해 영유아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아동의 뇌는 5세에 80%까지 완성되므로 이 시기에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 ‘유아가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습득하게 하는 것이 두뇌개발에 효과적이다’ 등 논리를 내세우며, 빠를수록 좋다, 혹은 뒤처지면 위험하다는 가설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교육시장의 논리는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것에 반해,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사교육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영유아사교육이 미칠 수 있는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의 영향에 대해 이미 여러 연구결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못하고 사교육시장의 논리에 압도당하고 있는 것이다.

본 발제문에서는 영유아사교육의 정신과적 영향과 학습적 효과에 대해 연구된 기존의 논문들을 조사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영유아사교육의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 지형을 파악하고, 유의미한 결과들을 사회적으로 재환기하기 위함이다.

II. 영유아사교육의 개념과 발달적합성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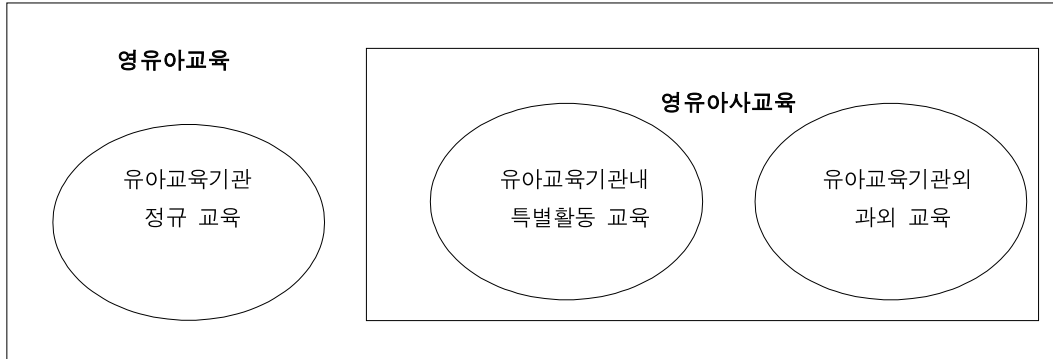
1. 영유아사교육의 개념

영유아사교육에는 선행학습의 성격으로 한글, 영어, 수학 등을 미리 준비시키는 교육이 있는 반면, 예체능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자 하는 차원의 교육, 다양한 경험과 취미 차원의 교육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영유아사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이 있으며 유아교육기관 외 영어, 놀이학원 등의 사교육기관, 개별 및 그룹 지도, 학습지 등이 있다.

장소나 과목, 취지 등에 따라 영유아사교육의 성격이 달라지겠지만, 영유아사교육이 유아교육기관 내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특별활동)과 유아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

는 교육활동을 말한다는 차성현(2010)의 개념을 따라, 유아교육기관 내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이루어지는 과외활동을 모두 포괄해 영유아사교육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그림 1> 영유아교육과 영유아사교육 개념 및 범위



자료: 차성현 외(2010), 유아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수정)

<표 5> 교육비와 보육비, 사교육비 구분

구분	교육비	보육비	사교육비
유치원	유치원 순수교육비, 기타 납부금	유치원 돌봄 비용	특기활동 비용
어린이집	-	어린이집 순 이용료, 어린이집 추가 비용	특별활동 비용
기타 보육·교육	-	보육 도우미, 혈연에 의한 보육료	유사기관, 각종 학원 및 문화센터, 방문학습지, 개 인·그룹 과외, 인터넷교육, 전화교육 등 기타 교육

자료: 서문희, 양미선(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영유아사교육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영향 등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에는 영유아사교육이 아니라, 조기교육, 조기특기교육, 유아조기교육 등의 개념에 초점을 맞춘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오효선(2001)은 조기교육을 수학, 언어 등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적인 연령 기준보다 빨리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이기숙 외(2002)에 의하면 유아조기특기교육은 유아의 흥미나 관심과 무관하게 선행학습이나 준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예를 들어 유아 대상의 학원 교육, 개인/소집단 과외교육, 가정학습, 가정 방문교육, 유치원의 특별활동을 의미한다. 박지연 외(2005)는 조기교육을 유치원 어린이집 이외의 다른 형태의 사교육으로서 예체능이나 교과목 학습을 학습지, 학원, 과외를 통해 배우는 것으로 정의했다.(이

명순, 2007)

이러한 정의를 참고할 때, 조기교육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개념화한 조기교육은 일반적인 의미의 영유아사교육과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연구물이 유아교육기관의 정규과정이나, 유아교육기관 내의 특별활동, 영어, 놀이학원 등의 사교육기관, 학습지, 교구 등의 영유아사교육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한 경우, 모두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2. 영유아사교육 논의의 전제 : 영유아사교육의 발달 적합성

영유아사교육의 학습효과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앞서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영유아의 발달 적합성이다. 여기에서는 공통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 발달 특성에 따른 적절한 정도의 교육내용을 살펴보고, 발달 적합성에 맞지 않는 교육의 위험성을 두뇌과학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등 모든 유아교육기관에서 시행되는 공통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서는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부/보건복지부)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과 만3~5세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에 따라 연령별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누리과정에서 기준으로 삼은 영역별 내용을 참고하면, 유아의 발달 특성에 따른 적절한 정도의 교육내용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건강하게 생활하기’ 범주의 내용은 휴식, 배변습관 등 건강한 습관을 가지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의사소통’ 영역의 ‘읽기’ 범주의 내용은 읽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보다는 읽어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것, 책 보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등의 정의적 영역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림 2> ‘신체운동·건강’영역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영역별 내용 비교표 예시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건강하게 생활하기	건강한 일상생활 하기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스스로 화장실에서 배변한다.	바른 배변습관을 가진다.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가진다.	바른 배변습관을 가진다.
	질병 예방하기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한다.
		질병의 위험을 알고 주의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 을 알고 실천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 을 알고 실천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 을 알고 실천한다.
		날씨에 맞게 옷을 입는다.	날씨와 상황에 알맞게 옷을 입는다.	날씨와 상황에 알맞게 옷을 입는다.	날씨와 상황에 알맞게 옷을 입는다.

자료: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그림 3> ‘의사소통’영역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영역별 내용 비교표 예시

읽기	읽기에 흥미 가지기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본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본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 본다.	읽어 주는 글의 내용 에 관심을 가진다.
		읽어 주는 글의 내용 에 관심을 가진다.	읽어 주는 글의 내용 에 관심을 가진다.	읽어 주는 글의 내용 에 관심을 가지고 읽 어 본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 를 찾아 읽어 본다.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	책에 흥미를 가진다.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소중하게 다룬다.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소중하게 다룬다.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소중하게 다룬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추측해 본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이해한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이해한다.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본다.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본다.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본다.

자료: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예시로 든 영역별 내용 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누리과정의 교육내용은 초등학교 이 후에 이루어지는 지식 중심의 교육내용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

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내용이 실제로 구현되는 방식 역시, 교과목 중심의 분리 수업이 아니라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맞춘 통합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누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아교육은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한글, 영어, 수·과학 등의 지식 위주의 준비교육도, 예·체능 교육 등 특정 영역의 발달을 강조한 특기교육도, 특정 부분에 뛰어난 아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교육하는 영재교육도 아니다. 유아교육의 본질은 특정 영역의 발달에 집착하지 않고 유아가 놀고, 쉬고, 먹고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 정서, 사회성, 인지 등 모든 영역의 조화로운 발달, 즉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전인교육에 있다.(양옥승, 2003)

영유아 사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원, 학습지, 교구 등의 사교육이 유아교육의 본질인 아동의 발달특성에 따른 교육, 전인교육과는 거리가 멀고, ‘빨리’ 하는 선행교육의 측면, ‘많이’ 하는 과잉교육의 측면을 가지기 때문이다. 두뇌과학자들은 뇌의 각 부분들이 담당하는 기능과 발달하는 시기가 다르므로, 선행교육이 아니라 두뇌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에 교육내용이 부합되는 적기교육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서유현(2010)은 영유아사교육이 영유아기 뇌 발달에 맞지 않음을 경고한다. 뇌 발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만0~3세는 전뇌가 골고루 발달하는 시기로서 어느 한쪽에 편중된 학습은 좋지 않으며, 감정이 가장 빠르고 예민하게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정 발달이 가장 중요하다. 만 3~6세는 인간의 종합적 사고와 창의력, 판단력, 도덕성 등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이고, 만 6~12세는 언어기능, 청각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의 발달 속도가 빠른 시기이다. 따라서 만 6~12세에 외국어 교육을 비롯한 말하기·듣기·읽기·쓰기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유아기에 측두엽(초등 시기)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미리 선행하면 전두엽은 적절한 자극이 없어서 발달하지 못하고, 측두엽은 과잉교육을 받아서 손상받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발달단계에 맞지 않은 영유아사교육으로 인한 영향으로, 학습효과 및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을 수 있다.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2005)은 영유아 조기사교육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지적, 정서적, 사회성 측면 3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본 발제문에서는 이 분류를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림 4> 인지적, 정서적, 사회성 측면 분류

세 측면	세부 영역
인지적 측면	학습의 효과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학습에서의 자율성
정서적 측면	스트레스
	무기력
	불안
	공격성
	주의집중력
사회성 측면	타인에 대한 배려
	자신감
	또래 관계

자료: 우남희 외(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Ⅲ. 전반적 영유아사교육의 학습효과와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의 영향

1. 전반적 영유아사교육의 학습효과

학부모들이 쉽사리 영유아사교육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빠를수록 학습효과가 좋다’, ‘늦으면 다른 아이들의 학습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는 신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영유아사교육이 인지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학습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연구된 결과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 효과를 검증한 연구(한대동, 2001; 이종태, 2002; 한국교육개발원, 2002 등)에 비한다면, 영유아 시기의 사교육 효과를 학습적 측면에서 검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는 영유아 시기가 초중등학생에 비해 어린 나이이기에 사교육 효과를 검증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사교육의 학습효과에 대한 대표적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전반적 영유아사교육의 학습효과에 대한 대표적 연구결과 정리

분류	연구자	연구 년도	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아동 의 학습 효과 검증	이기숙	2002	조기 사교육의 학습적 효과 연구	유아기에 문자(한글)와 수를 조기학습한 아이들과 학습하지 않은 아이들을 추적관찰해 초5년과 중1 모의고사 비교	국어, 수학 성적에서 큰 차이가 없음
	최옥희, 김영호, 김용미	2009	아동의 취학전 교육경험에 따른 학업 성취 차이 연구	초등학교 입학후 1년동안 교육을 받은 아동 2000명과 그 학부모 2000명 대상으로 취학전 교육기관 조사, 아동용 학업성취도 검사 실시	사설학원 경험 아동이 유치원 경험 아동보다 국어 성취도, 수학 성취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음.
	이기숙, 김순환, 김민정	2011	만 5세의 언어 관련 사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 국어 학력과 어휘에 미치는 영향 연구	1차 연구: 수도권 만5세 578명의 읽기, 보고쓰기, 어휘 능력 측정 2차 연구: 해당 아동이 초1이 되었을 때(328명) 추적조사해 언어능력과 어휘검사 실시	만 5세 언어 관련 사교육 여부에 따른 초 1의 국어학력점수와 어휘점수에 차이가 없었음.
	이기숙, 김순환, 정종원, 김민정	2013	만 5세의 언어 관련 사교육이 초등학교 3학년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1차 연구: 수도권 만5세 578명의 읽기, 보고쓰기, 어휘 능력 측정 3차 연구: 해당 아동이 초3이 되었을 때(187명) 추적조사해 읽기이해능력검사와 어휘검사 실시	유아사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에서 모두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음.
학습 효과 에 대한 인식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	2005	유치원 원장의 인식을 중심으로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유치원 원장 311명의 설문을 통해 조기사교육의 인지적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유치원 원장들은 조기사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분야의 지식이 크게 증가되지 않으며, 조기 사교육을 받은 유아가 또래보다 뛰어난 특기나 재능을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음.

1) 아동의 학습효과 검증

① 이기숙 (2002) : 유아기 국어, 수학 사교육의 효과가 초5, 중1에서 나타나지 않았음.

이기숙(2002)은 조기 사교육의 학습적 효과를 연구하였다. 유아기에 문자(한글)과 수를 조기 학습한 아이들과 학습하지 않은 아이들을 추적 관찰해 초등 5년과 중 1년때 모의고사를 실시한 결과, 국어 수학 성적은 큰 차이가 없고, 사회성은 조기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우남희 외, 2009 재인용)

② 최옥희 외 (2009) : 취학전 사설학원 경험 아동이 초1 국어, 수학 학업성취도 낮았음.

최옥희, 김영호, 김용미(2009)에 따르면 취학전 사설학원을 다닌 아동이 유치원에 다닌 아동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업 성취도가 낮았다. 초등학교 입학후 1년동안 교육을 받은 아동 2000명에게 아동용 학업성취도 검사를 실시해보니, 취학전 사설학원을 다닌 아동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비해 국어와 수학 학업성취도에서 모두 떨어진 결과를 보였다.

<그림 5> 취학전 교육기관에 따른 국어 학업 성취의 차이

(n=1,830)

	구분(n)	국어 성취도	F
		M(SD)	
취학 전 교육기관 유형	국·공립 병설유치원(231, 12.6)	17.33(3.16)a	15.130***
	사립유치원(628, 34.1)	17.43(2.47)a	
	국·공립 어린이집(158, 8.6)	15.90(3.72)b	
	민간 어린이집(278, 15.2)	15.61(3.33)b	
	사설학원(72, 3.9)	16.10(3.70)ab	
	국·공립 병설유치원과 학원(56, 3.1)	17.00(2.30)ab	
	사립유치원과 학원(137, 7.5)	16.80(2.60)ab	
	국·공립 어린이집과 학원(33, 1.8)	15.33(4.22)ab	
	민간 어린이집과 학원(94, 5.1)	15.47(3.78)b	
	다닌지 않음(143, 7.8)	15.37(3.97)b	

***p<.001. abc :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최옥희 외(2009),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취학전 교육경험에 따른 학교 적응

<그림 6> 취학전 교육경험에 따른 수학 학업성취의 차이

(n=1,830)

구분(n)		M(SD)	F
취학 전 교육기관 유형	국·공립 병설유치원(231, 12.6)	18.05(2.12)a	10.394***
	사립유치원(628, 34.1)	16.94(2.61)c	
	국·공립 어린이집(158, 8.6)	16.36(3.06)c	
	민간 어린이집(278, 15.2)	16.16(3.07)c	
	사설학원(72, 3.9)	16.79(3.20)ac	
	국·공립병설유치원과 학원(56, 3.1)	16.91(2.31)ac	
	사립유치원과 학원(137, 7.5)	16.91(2.46)ac	
	국·공립 어린이집과 학원(33, 1.8)	16.12(3.61)ac	
	민간 어린이집과 학원(94, 5.1)	15.87(3.14)bc	
	다리지 않음(143, 7.8)	15.86(3.54)b	

***p<.001. abc :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자료: 최옥희 외(2009),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취학전 교육경험에 따른 학교 적응

③ 이기숙외(2011) : 초1 국어 능력에 있어 만5세 언어 관련 사교육 효과가 없었음.

이기숙, 김순환, 김민정(2011)은 만5세 유아의 언어 관련 사교육 여부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성적을 비교했다. 만 5세에 언어 관련 사교육 여부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학력 점수는, 독해력의 경우 사교육 미 실시 집단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독해력을 제외한 4개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교육 미 실시 집단의 평균이 일관적으로 높았다. 언어 관련 사교육 여부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때 어휘점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만 5세 유아의 언어 사교육 여부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점수는 대체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7> 사교육 여부에 따른 국어학력 점수

	사교육 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관련 있는 단어 찾기	예	159	49.69	9.99	-.70
	아니오	149	50.48	10.00	
오자	예	159	49.65	9.97	-.89
	아니오	149	50.66	9.81	
맞춤법	예	159	49.25	11.23	-1.60
	아니오	149	51.08	8.67	
논리력	예	159	49.31	10.51	-1.50
	아니오	149	50.99	9.187	
독해력	예	159	48.83	10.54	-1.97*
	아니오	149	51.07	9.41	
국어 학력 점수	예	159	49.35	7.30	-2.02*
	아니오	149	50.86	5.81	

* $p < .05$

자료: 이기숙 외(2011), 유아기의 기본적인 언어능력이 초등학교 1학년 국어 학력과 어휘에 미치는 영향,

<그림 8> 사교육 여부에 따른 어휘점수

	사교육 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그림선택	예	159	49.61	10.35	-.61
	아니오	149	50.32	9.91	
유의어	예	159	49.48	10.09	-.70
	아니오	149	50.27	9.87	
반의어	예	159	49.99	9.88	.00
	아니오	149	49.99	10.14	
어휘 점수	예	159	49.59	9.96	.58
	아니오	149	50.25	10.09	

자료: 이기숙 외(2011), 유아기의 기본적인 언어능력이 초등학교 1학년 국어 학력과 어휘에 미치는 영향,

④ 이기숙 외(2013) : 초3 국어 능력에 있어 만5세 언어 관련 사교육 효과가 없었음.

이기숙, 김순환, 정종원, 김민정(2013)은 만5세 유아의 초등학교 3학년의 문해 능력을 추적 조사해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취학전 문해 사교육

경험이 없었던 아동이 사교육을 받았던 아동보다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읽기이해능력의 하위영역별로 취학 전 사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이해 점수가 모두 취학전 문해사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높았으나 사실적, 추론적 이해에서는 유의하지는 않았던 반면 비판적 이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해 사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의 아동이 더 고차원적인 텍스트 이해력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사교육 경험이 읽기를 위한 궁극의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림 9> 취학전 문해 사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

구 분		취학 전 문해 사교육 경험		t
		유(N=108)	무(N=71)	
읽기이해 능력	사실적 이해	15.44(2.11)	16.00(1.92)	-1.79
	추론적 이해	9.14(1.44)	9.49(1.26)	-1.69
	비판적 이해	6.04(1.44)	6.52(1.44)	-2.20*
	총점	29.64(4.22)	31.03(3.84)	-2.23*
어휘력		20.21(4.29)	21.7(4.07)	-2.38*

* $p < .05$

자료: 이기숙 외(2013), 만5세 읽기능력, 어휘력 및 개인·환경 변인에 따른 초등학교 3학년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

2) 학습효과에 대한 인식

① 우남희 외(2005) : 유치원 원장들은 조기사교육으로 인한 지식 증가에 부정적임.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2005)은 유치원 원장 311명의 설문을 통해 영유아사교육으로 인한 인지적 발달의 영향에 대한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유치원 원장들은 유아들이 조기 사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분야의 지식이 크게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 조기 사교육을 받은 유아가 또래보다 뛰어난 특기나 재능을 보인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한다”에 56%가 응답하는 등, 문제해결력의 차이가 있다고도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 원장들은 조기 사교육이 부모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학습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10> 인지적 측면에 대한 문항들의 응답빈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육받는 분야의 지식이 증가한다.	12(3.9)	98(31.8)	96(31.2)	93(30.2)	9(2.9)
2. 문제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한다.	3(1.0)	54(17.4)	79(25.5)	159(51.3)	15(4.8)
20. 학습요령을 잘 안다.	3(1.0)	49(16.1)	120(39.5)	117(38.5)	15(4.9)
47. 또래보다 뛰어난 특기나 재능을 보인다.	13(4.3)	75(25.0)	142(47.3)	69(23.0)	1(0.3)
48. 다음에 할 놀이나 작업을 스스로 찾기보다는 교사에게 묻는 경우가 많다.	3(1.0)	31(10.4)	87(29.3)	140(47.1)	36(12.1)

자료: 우남희(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분석

2. 영유아사교육이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시기의 과도한 사교육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조기 특기/과외교육이 진행되는 현 실태에 대해 부모의 94.1%가 문제가 있다고 바라본 것(우남희, 1992)은 영유아 사교육이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고 정서적 악영향을 미쳐 정신과적 질병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이미 사회적으로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소아과나 정신과에 찾아오는 어린 아이들 중에 조기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신의진, 2002)하며, ‘영어유치원이 10곳 생기면 소아정신과 1곳이 생긴다’ (프레스리언 2012-05-15)는 말이 떠돌 정도이다. 이에 대해 영유아시기에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공격성, 우울, 불안 등의 문제행동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영유아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예민할 뿐 아니라 스스로 이를 해결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어른들에게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도 유아에게는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신의진, 2001) 또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특히 아동의 경우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 그 상관관계가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정동화, 2002) 이는 성인에 비해 아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 볼 때 영유아시기에 사교육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아동의 문제행동 유발에 치명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사교육의 정서적 발달 영향에 관한 대표적 연구에는 첫째, 사교육 이용 현황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연구 결과가 있다. 둘째, 영유아시기에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외현적 문제행동인 비행, 공격성과 내재적 문제행동인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셋째, 영유아사교육이 미치는 정서적 영향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결과가 있다.

영유아사교육이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표적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영유아사교육이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표적 연구결과 정리

분류	연구자	연구 년도	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아동 의 스트 레스 차이	홍은자, 김희진	2001	유아의 학원·학습지 이용 실태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연구	서울 2개 유치원에 재학중인 만 4, 5세 유아 89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학원·학습지 이용실태조사지, 유아의 스트레스 척도 이용(아동검사)	학원·학습지의 수와 유아의 스트레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음.
	박영양, 이성희	2004	과외활동(학원, 학습지 등 모든 사교육 총칭) 정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정도 연구	D시의 한 유치원 만5세 유아의 부모 139명을 대상으로 과외활동 현황 조사 후, 상하위 20% 유아 30명 대상 스트레스검사 실시(아동검사)	과외 6개 이상받는 유아가 과외를 1개 또는 하지 않는 유아에 비해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불안-좌절감 경험, 자존심 상함, 부담 등 모든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아동 의 문제 행동 차이	권정윤	2007	사교육 가지수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 빈도 연구	유치원, 어린이집 재학중인 7세 아동 425명과 그 학부모 대상으로 사교육 현황 조사, 문제행동 검사(부모검사)	사교육 가지수가 많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인 과잉행동, 신경질과 퇴행행동, 공격적 행동이 높아짐.
	백혜정, 김현신,	2005	유아의 사교육 수, 시작시기,	공사립재학중인 자녀를 둔 서울 및 지방 거주	사교육 수가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인 비행,

정서적 영향 에 대한 인식	우남희		소요시간과 사회정서적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학부모 125명 대상으로 조기사교육 실태 조사, 문제행동평가 실시(부모검사)	공격성과 내재적 문제행동인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특히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깊음.
	송정은, 홍현주 외	2010	사교육 시간에 따른 외현화 문제와 내면화 문제의 성별 차이 연구	군포시내 5개 초등학교 1학년(학부모) 755명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 부모보고형 아동행동진단검사 실시(부모검사)	남아의 경우 사교육 시간이 많을수록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빈도가 높았음.
	홍현주	2011	사교육 시간과 우울증의 관계 연구	경기도 군포시 소재 5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761명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 우울증 검사 실시(부모검사)	하루 4시간 이하의 사교육을 받은 아이 중 10% 정도에서 우울증상을 보인 반면 4시간이 넘는 사교육을 받은 아이는 우울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30%를 웃돌음.
	신의진, 이경숙	2004	영상물과다시청 을 중심으로 과잉조기인지교 육의 성장발달 영향 연구	영상물에 과다노출된 50개월 미만의 영유아 14명 대상으로 낮선상황실험절차, 사회성숙도 검사, 자폐증 검사, 면접 등	어린시기에 일찍 영상물에 자주 노출된 영유아들은 불안정한 애착 형성과 정서조절의 문제, 언어발달 지연 및 다양한 병리적 역기능 문제를 보임.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	2005	유치원 원장의 인식을 중심으로 영유아사교육으 로 인한 정서적 발달 영향 연구	유치원 원장 311명의 설문을 통해 조기사교육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	유치원 원장들은 조기사교육을 받은 유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보았고, 주의가 산만하며 끈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보았음.

1)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 차이

① 홍은자 외(2001) : 학원, 학습지 많이 하는 유아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음.

홍은자, 김희진(2001)이 서울에 위치한 2개 유치원에 재학중인 만 4, 5세 유아 89명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원, 학습지의 수와 유아가 느끼는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학원, 학습지를 많이 하는 유아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8> 어머니의 성취압력, 유아의 학원, 학습지 이용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어머니의 성취압력	이용하는 학원, 학습지의 수
어머니의 성취압력	1.0	
이용하는 학원, 학습지 수	.40**	1.0
유아의 스트레스	.35**	.45**

**p< .01

자료: 홍은자(2001), 어머니의 성취 압력과 유아의 학원·학습지 이용 및 스트레스 간의 관계

② 박영양 외(2004) : 사교육 수가 많은 유아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음.

박영양, 이성희(2004)도 과외활동(학원, 학습지 등 모든 사교육을 총칭) 정도에 따라 유아의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전체적으로 현재 과외를 6개 이상하고 있는 상위집단 유아가 과외를 1가지 또는 하지 않고 있는 유아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영역 중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불안-좌절감 경험, 자존심 상함, 부담 등 모든 상황에서 하위집단보다 과외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상위집단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냈다.

<그림 11> 과외활동 정도에 따른 유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내용	과외정도	N	Mean	SD	t-value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하위집단	15	1.27	1.75	7.35***
	상위집단	15	5.33	1.23	
불안-좌절감 경험	하위집단	15	4.00	2.92	3.31**
	상위집단	15	7.13	2.19	
자존심 상함	하위집단	15	.93	1.43	4.25***
	상위집단	15	3.80	2.17	
부담감	하위집단	15	.60	1.05	4.47***
	상위집단	15	3.27	2.05	
계	하위집단	15	6.80	3.89	10.12***
	상위집단	15	19.53	2.92	

** p <.01 *** p <.001

자료: 박영양(2004), 유아의 과외참여 현황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분석

2) 아동의 문제행동 차이

① 권정윤(2007) : 사교육 가지수가 많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도 높아짐.

권정윤(2007)은 유치원, 어린이집 재학중인 7세 아동 425명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교육 현황에 따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을 분석했다. 자녀의 교육, 양육,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사교육의 가지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며, 유아의 문제 행동인 과잉행동, 신경질과 퇴행행동, 공격적 행동도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우남희 외, 2009)

<그림 12> 사교육 가지수에 따른 문제행동의 변량분석

Analysis of variance for behavior problems by the number of lessons

	1~2 lessons	3~4 lessons	5 or more	F
	M (SD)	M (SD)	M (SD)	
Hyperactivity	13.76 (3.16)	14.10 (3.85)	14.50 (3.66)	1.53
Anxious/withdrawn behaviors	11.09 (3.15)	11.59 (2.92)	11.40 (3.02)	.92
Aggressive behaviors	9.61 (3.36) ^a	10.17 (3.45)	10.76 (3.30) ^b	4.00*
Behavior problem Total	34.47 (6.86) ^a	35.86 (7.59)	36.51 (7.38) ^b	3.58*

Note: Subscripts a, b differ at $p < 0.05$ in Sheffe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ison. * $p < 0.05$

자료: 권정윤(2007).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문제행동

<그림 13> 아동 문제행동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predictors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N=425)

Predictor variables	Hyperactivity	Anxious/withdrawn behaviors	Aggressive behaviors	Behavior problem Total
Number of lessons	.10	.04	.28*	.17*
Parenting stress	.54***	.34**	.42***	.65**
R^2	.29	.12	.32	.43
F	60.32***	19.50***	57.48***	107.25***

Note: Betas are presented are standardized betas.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권정윤(2007).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문제행동

② 백혜정 외(2005) : 유아의 사교육 수가 외현적, 내면적 문제행동과 유의미했음.

백혜정, 김현신, 우남희(2005)는 공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인 학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유아들의 사교육 수, 시작 시기, 소요시간과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의 수는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인 비행, 공격성과 내재적 문제행동인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외현화 행동과 내재화 행동 모두 조기사교육의 가짓수만이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확인되

었고, 특히 외현화 행동에 대한 조기사교육 가짓수의 설명력이 16%정도임에 비해, 내재화 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10%정도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조기사교육의 가짓수가 유아들의 내재화 문제보다는 외현화 문제를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유아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조기사교육 변인들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N=91)

변인	B	SEB	β	r	R ²	ΔR^2
상수 (외현화행동)	6.256	2.270				
가짓수	.903	.312	.316*	.402	.161*	.161
시작시기	-.650	.411	-.172	.425	.180*	.019
소요시간	.116	.121	.096	.435	.189*	.009
상수 (내재화 행동)	.078	2.286				
가짓수	.968	.314	.353*	.318	.101*	.101
시작시기	.265	.414	.073	.324	.105	.004
소요시간	.030	.122	-.025	.325	.106	.001
상수 (문제 행동증후군척도)	1.853	1.633				
가짓수	.382	.225	.203	.176	.031	.031
시작시기	.152	.296	.061	.184	.034	.003
소요시간	-.005	.087	-.007	.184	.034	.000

* $p < .01$

자료: 백혜정 외(2005). 조기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③ 송정은 외(2010) : 남아의 경우 사교육 시간에 따른 외현화 빈도가 높았음.

사교육 시간에 따른 외현화 문제와 내면화 문제의 성별 차이에 대해 연구한 결과도 있었다. 송정은, 전덕인, 석정호, 홍나래, 김영신, 홍현주(2010)에 따르면 여아의 경우 사교육 시간에 따라 외현화 문제와 내면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빈도는 차이가 없었던 반면, 남아의 경우 사교육 시간이 많을수록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빈도가 높았다. 따라서 사교육을 많이 받는 남아의 경우 향후 성인기에서 정신과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Table 3. The differences of frequencies who have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who have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ccording to the time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in boys

	Time spent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χ^2 (df)	p
	Little	Average	Much		
Ext (+), No (%)	11 (21.6)	42 (15.7)	13 (31.0)	6.3 (2)	0.044
Ext (-), No (%)	40 (78.4)	225 (84.3)	29 (69.0)		
Int (+), No (%)	3 (5.9)	30 (11.3)	5 (11.9)	1.37 (2)	0.505
Int (-), No (%)	48 (94.1)	239 (88.8)	37 (88.1)		

Ext : children with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t : children with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able 4. The differences of frequencies who have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who have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ccording to the time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in girls

	Time spent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χ^2 (df)	p
	Little	Average	Much		
Ext (+), No (%)	5 (8.5)	31 (11.8)	6 (10.3)	0.57 (2)	0.751
Ext (-), No (%)	54 (91.5)	232 (88.2)	52 (89.7)		
Int (+), No (%)	8 (13.8)	41 (15.5)	14 (24.1)	3.07 (2)	0.215
Int (-), No (%)	52 (86.7)	223 (84.5)	44 (75.9)		

Ext : children with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t : children with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자료: 송정은 외(2010), 사교육 시간에 따른 외현화 문제와 내면화 문제의 성별 차이

④ 홍현주(2011) : 하루 4시간 넘는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우울증 확률이 3배이상 높음.

홍현주(2011)는 경기도 군포시 소재 5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761명을 대상으로 사교육과 아동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 사교육 시간이 많은 아동에서 우울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루 4시간 이하의 사교육을 받은 아이 중 10% 정도에서 우울증상을 보인 반면 4시간이 넘는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우울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30%를 웃돌았다.

⑤ 신의진 외(2004) : 인지교육을 위한 영상물을 과다시청한 유아는 정서조절 등의 문제를 보임.

전체 사교육 종류와 관련된 것은 아니나, 과잉조기 인지교육이 유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유아의 영상물과다시청을 중심으로 분석한 신의진, 이경숙(2004)의 연구에서는, 영상물과다시청이 정서조절, 애착 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했다. 50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상물 시청빈도와 노출 시기, 지속 등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어린 시기에 일찍 영상물에 자주 노출된 영유아들이 불안정한 애착 형성과 정서조절의 문제, 언어발달 지연 및 다양한 병리적 역기능의 문제를 보인 것이다. (이명순, 2007)

<그림 16> 영상물 과다노출로 인한 임상군 유아의 임상적 특성 및 증상

임상영역	빈도 (%)
<u>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u>	
눈맞춤 결여	14(100)
혼자놀이	13(92.9)
장난감이나 물건 교환 거의 없음	11(78.6)
호명반응의 결여	11(78.6)
사회적 모방행동 결여	10(71.4)
사람에 대한 관심 거의 없음	10(71.4)
저조한 사회적 미소	9(64.3)
원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행동 거의 없음	8(57.1)
낮가림이 거의 없음	3(21.5)
<u>정서조절의 문제</u>	
기분 변화	13(92.9)
분노발작 및 심한 짜증	12(85.7)
회피	5(35.7)
억제된 정서표현	3(21.5)
과잉경계	3(21.5)
<u>언어발달의 문제</u>	
언어적 의사소통의 지연	14(100)
언어 표현 및 이해력의 지연	13(92.9)
과도한 혼잣말	6(42.9)
비정상적 언어 표현; 영어 반복, 특이한 어조 등	4(28.6)
<u>역기능적 조절 활동수준</u>	
과잉활동	8(57.1)
과소활동	1(71.4)
<u>과도한 경직성</u>	
특정 장난감, 색깔, 단어 등에 집착	10(71.4)
반복적인 놀이 패턴	9(64.3)
일반적으로 융통성 저조	9(64.3)

<u>기타 문제 행동</u>	
공격적 행동	10(71.4)
자해행동	8(57.1)
반복적인 상동행동	7(50.0)
충동성	3(21.5)

* 모든 임상영역의 하위영역은 중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임

자료: 신의진 외(2004), 과잉조기 인지교육이 유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3) 정서적 영향에 대한 인식

① 우남희 외(2005) : 유치원 원장들은 조기사교육의 결과, 스트레스가 많고 산만하다 인식.

영유아사교육으로 인한 정서적 발달의 영향과 관련해,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2005)은 유치원 원장 311명의 설문을 통해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응답 원장의 67%가 조기사교육을 받는 유아가 “학원 스트레스가 많다”고 응답하였고, 69%가 “쉽게 지루해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72%가 “성급하다, 62%가 ” 주의가 산만하다 “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유치원 원장들은 조기 사교육 받은 유아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으며, 주의가 산만하며 끈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았다. 특히 쉽게 지루해하거나 성급하다는 응답이 70%에 이르렀는데, 이는 스트레스가 개인의 주의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불안 수준을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8> 정서적 측면에 대한 문항들의 응답빈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9. 복통, 두통 등의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다.	11(3.6)	44(14.3)	95(30.9)	145(47.2)	12(3.9)
14. 쉽게 지루해 한다.	3(1.0)	32(10.4)	60(19.5)	187(60.7)	26(8.4)
15. 성급하다.	5(1.6)	29(9.5)	51(16.7)	198(64.9)	22(7.2)
23. 주의가 산만하다.	5(1.6)	39(12.7)	73(23.8)	150(48.9)	40(13.0)
25. 쉽게 짜증을 낸다.	5(1.6)	33(10.8)	73(23.9)	170(55.6)	25(8.2)
29. 학업 스트레스가 많다.	4(1.3)	41(13.4)	56(18.3)	149(48.7)	56(18.3)

자료: 우남희 외(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분석

3. 영유아사교육이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시기의 사교육이 영유아의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면, 또래관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사회성 발달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등의 초등학교 적응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영유아사교육이 초등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관련 연구에는 영유아사교육이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어학원 유치부 등의 사설학원을 다닌 경우를 일반적인 유아교육기관을 다닌 경우와 비교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적응도를 분석한 연구, 영유아사교육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영유아 영어사교육이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영유아사교육의 사회적 발달 영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내용 정리

분류	연구자	연구 년도	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아동 의	이기숙	2002	조기 사교육의	유아기에 문자(한글)와 수를 조기학습한	조기사교육을 받은 아이가 사회성이 더 떨어짐.

사회 성 발달 검증			학습적 효과 연구	아이들과 학습하지 않은 아이들을 추적관찰	
초등 학교 적응 도 검증	최옥희, 김영호, 김용미	2009	취학전 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학교 적응차이 연구	초등학교 입학후 1년동안 교육을 받은 아동 2000명과 그의 학부모 2000명 대상으로 취학전 교육기관 조사, 학교적응검사 실시	취학전 전일제 사설학원을 다닌 경우 국공립/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민간어린이집에 비해 학교적응도가 떨어짐
	최지영, 양현주	2012	취학전 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학교 초기 적응차이 연구	초등학교 1학년(4월) 담임교사 18명, 아동과 그 학부모 329쌍 대상으로 취학전 교육기관 조사, 교사용 학교적응검사, 아동용 학교적응검사 실시	(교사의 관점) 유치원 경험 아동이 영어학원 유치부 경험아동보다 학교생활적응과 또래적응에서 높았고, 어린이집 경험 아동이 영어학원 유치부 경험 아동보다 또래적응에서 높았음. (아동의 관점) 유치원, 어린이집 경험 아동이 영어학원 유치부 경험아동에 비해 모든 적응 영역에서 높았음.
사회 성 영향 에 대한 인식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	2005	유치원 원장의 인식을 중심으로 영유아사교육 의 사회성 발달 영향 연구	유치원 원장 311명의 설문을 통해 조기사교육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	유치원 원장들은 조기사교육을 받은 유아가 자신감이 높으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적고 이기적이며 주목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인식함.

1) 아동의 사회성 발달 검증

① 이기숙(2002) : 유아사교육 받은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떨어짐.

이기숙의 연구(2002)에서는 유아기에 문자(한글)과 수를 조기 학습한 아이들과 학습하지 않은 아이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국어 수학 성적은 큰 차이가 없고, 사회성은 조기교육을 받

은 아이들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우남희 외, 2009)

2) 초등학교 적응도 검증

① 최옥희 외(2009) : 전일제 사설학원 경험 아동의 학교 적응도가 떨어짐.

최옥희, 김영호, 김용미(2009)는 초1학생 2000명과 그의 학부모 2000명, 담임교사 66명을 대상으로 취학전 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학업수행 적응, 또래 적응, 교사 적응 등의 학교 적응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취학전 전일제 사설학원을 다닌 경우 국공립,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학교 적응도가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9> 취학전 교육경험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

	구 분(n, %)	M(SD)	F
취학 전 교육 기관 유형	국·공립 병설유치원(231, 12.6)	4.16(.74)a	20.231***
	사립유치원(628, 34.1)	4.06(.67)b	
	국·공립 어린이집(158, 8.6)	3.57(.85)cd	
	민간 어린이집(278, 15.2)	3.60(.77)bc	
	사설학원(72, 3.9)	3.55(.91)bc	
	국·공립 병설유치원과 학원(56, 3.1)	3.80(.75)abc	
	사립유치원과 학원(137, 7.5)	3.66(.84)bc	
	국·공립 어린이집과 학원(33, 1.8)	3.52(.99)bc	
	민간 어린이집과 학원(94, 5.1)	3.69(.80)bc	
	다나지 않음(143, 7.8)	3.59(.81)bc	

자료: 최옥희 외(2009),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취학전 교육경험에 따른 학교 적응, 학업 성취의 차이에 관한 연구

② 최지영(2012) : 영어학원 유치부 경험 아동의 초기 학교 적응도가 떨어짐.

최지영, 양현주(2012)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18명, 아동과 그 학부모 329쌍을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학원 유치부 경험에 따른 초등학교 초기 적응을 비교하였다. 교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취학전 유치원을 경험한 아동이 영어학원 유치부를 경험한 아동보다 학교생활적응과 또래적응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취학전 어린이집을 경험한 아동이 영어학원 유치부를 경험한 아동보다 또래적응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림 20> 교사의 관점에서 취학전 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아동의 초등학교 초기 적응에 대한 일원 변량 분석

적응	기관	유치원 (n=180)	어린이집 (n=77)	영어학원 유치부 (n=72)	전체 (n=329)	df	F
		M(SD)	M(SD)	M(SD)	M(SD)		
학교생활적응		46.32(9.03)	45.62(8.89)	42.47(11.49)	45.31(9.68)	2	4.19*
학업수행적응		44.13(8.58)	43.79(8.87)	43.17(9.22)	43.84(8.77)	2	.31
또래적응		32.38(5.93)	32.57(5.61)	30.01(7.09)	31.91(6.19)	2	4.42*
교사적응		20.79(4.07)	20.26(4.19)	20.39(3.61)	20.58(4.00)	2	.59
전 체		143.62(23.10)	142.25(22.16)	136.04(27.90)	141.64(24.14)	2	2.59

* $p < .05$

자료: 최지영 외(2012), 취학전 교육기관 유형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초기 적응 비교

아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취학 전 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초기 적응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경험 아동이 영어학원 유치부 경험 아동보다 모든 적응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림 21> 아동의 관점에서 취학 전 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아동의 초등학교 초기 적응에 대한 분산분석

적응	기관	유치원 (n=180)	어린이집 (n=77)	영어학원 유치부 (n=72)	전체 (n=329)	df	F
		M(SD)	M(SD)	M(SD)	M(SD)		
학교생활적응		22.97(2.50)	22.42(3.75)	21.69(3.32)	22.56(3.05)	2	4.73***
학업수행적응		21.67(3.34)	21.56(3.82)	20.21(3.38)	21.33(3.51)	2	4.81**
또래적응		20.22(3.83)	20.51(3.67)	18.90(3.92)	20.00(3.84)	2	3.97*
교사적응		21.89(3.03)	22.19(2.95)	20.15(3.40)	21.58(3.18)	2	10.06***
전 체		86.76(10.19)	86.68(11.79)	80.96(12.37)	85.47(11.30)	2	7.64**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최지영 외(2012), 취학전 교육기관 유형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초기 적응 비교

사설학원을 경험한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경험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연구는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영춘(1999)은 학원에서의 교육경

험은 사회적 적응행동, 지적 적응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고, 배점옥(2004)의 연구에서 취학 전 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구성요소별 아동의 학교 적응 능력은 학원을 다닌 아동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최영애(1994)의 연구에서 유치원 경험 아동이 학원 경험 아동보다 학교생활이나 사회 정서적 발달영역에서 적응된 행동을 보인다고 한 바 있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이 놀이중심 교육과정, 또는 통합교육을 통해 생활영역의 발달이 균형있게 이루어져 전인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학원에서는 한 측면의 기능이나 특기교육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옥희 외, 2009)

3)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① 우남희 외(2005) : 유치원 원장들은 조기사교육의 결과, 배려가 적고 이기적이라고 인식.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2005)은 유치원 원장 311명의 설문을 통해 조기 사교육이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응답 원장의 70%가 조기사교육을 받는 유아가 “잔피를 많이 부린다(약은 행동을 많이 한다.)” 고 응답했으며, 60%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이기적인 행동을 보인다” 고 보았다. 또한 61%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고 싶어한다”, 69%가 “우쭐대는 경향이 있다” 고 보았다. 응답 원장의 36%가 “자신감이 있다” 고 보았고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은 19%에 불과하였지만, ‘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45%여서 자신감 형성에 조기 사교육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받은 유아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적고 이기적인 경향이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의식이나 과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22> 사회성 측면에 대한 문항들의 응답빈도

빈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7.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고 싶어한다.	3(1.0)	28(9.1)	88(28.6)	155(50.3)	34(11.0)
8. 잔피를 많이 부린다.	11(3.6)	36(11.8)	44(14.4)	173(56.7)	41(13.4)
16.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본다.	3(1.0)	48(15.5)	85(27.5)	155(50.2)	18(5.8)
19. 우쭐대는 경향이 있다.	3(1.0)	36(11.8)	56(18.4)	172(56.4)	38(12.5)
35. 자신감이 있다.	3(1.0)	54(17.8)	138(45.4)	102(33.6)	7(2.3)
44. 다른 아이들에 비해 이기적인 행동을 보인다.	4(1.3)	44(14.5)	74(24.4)	153(50.5)	28(9.2)

자료: 우남희 외(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분석

Ⅳ.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학습효과와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의 영향

영유아사교육 문제에 있어서 영어사교육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조기영어열풍이 일반적인 영유아사교육 문제에 포섭되지 않을 정도로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이에 따라 영유아시기의 전반적 사교육이 아닌 영어사교육에 한정해 진행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도록 편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 누리과정에서는 영어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영어학원 유치부, 시간제 학원, 학습지 등의 영유아 영어사교육 상품이 셀 수 없이 많으며, 2013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조사한 결과 취학 전 아동의 67.2%가 사교육을 통해 영어를 미리 배우고 있음을 확인했듯, 영유아 영어사교육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미 자리하고 있다.

영유아 영어사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조기영어교육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조기영어교육이 조기영어사교육을 뜻하는 상황에서 이는 조기영어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효과성에 대한 연구

가 많은 것은, Chomsky, Lenneberg, Krashen 등 세계적 학자들에 의해 외국어학습 시기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나, 우리나라와 같은 EFL환경에서 적용가능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 때문으로 보인다. 효과성 외에도, 영유아 영어사교육이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지는 않으나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1.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학습효과

조기 언어 교육을 찬성하는 입장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생득적으로 언어습득장치(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있어 선천적으로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으며(Chomsky, 1965), LAD는 1-6세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작용하므로 이 시기에 아동이 언어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기만 하면 몇 개의 언어라도 모국어와 같이 쉽게 습득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있어, 인간의 두뇌가 성장하면서 특정 기능이 뇌의 특정 부분에 할당되는 현상인 두뇌의 편중화 현상(또는 편기, lateralization)은 2세경이 시작되고, 언어와 관련된 편중화 현상은 사춘기에 완성되므로 대체적으로 만 10세 이전에 제2언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Lenneberg, 1967)

그러나 위와 같이 조기언어교육을 지지하는 입장들은 우리나라에서처럼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환경(EFL)이 아니라 영어가 지역사회에서 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언어로서 배우는 조건(ESL)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Olson과 Samuels(1973), Stern(1983)의 경우 ESL과 같이 자연스러운 환경이 아닌 학교의 교실과 같은 형식적인 상황에서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 나이가 어리면 불리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Cummins(1979)에 의하면 ESL환경과 EFL환경에서의 제2언어 또는 외국어 학습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며, ESL환경에서의 제2언어는 언어형태에 의식적인 주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인지적인 것이 덜 요구되는 언어이나 EFL환경에서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어진다고 한다.(신동주, 2007)

국내에도 영유아 영어사교육이 학습효과가 있는가, 과연 어릴수록 효과적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이는 학습효과와 연령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학습효과와 모국어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학습효과와 영어교육경험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학습효과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학습효과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학습효과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내용 정리

분류	연구자	연구 년도	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학습효과와 연령의 관계	우남희, 서유현, 강영은	2002	연령에 따른 영어교육 효과성 분석	영어교육경험이 없는 만 4세와 7세 집단 23명에 영어교육 실시한 후 배운 것을 테스트, 영어교육 현장 관찰.	영어테스트 결과 7세가 월등하게 우세했음. 교육현장 관찰 결과, 전체적 학습분위기도 두 집단의 차이가 컸고, 4세아는 주의 환기와 행동 통제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음.
	우남희, 김현신	2004	연령, 보존개념의 발달과 영어학습 효과와의 상관관계 분석	영어교육경험이 없는 만 4세와 7세 집단 23명에 보존개념검사 실시. 한달간 영어교육 실시한 후 영어학습효과 검사.	영어학습의 효과는 보존개념의 발달과 상관관계가 높아, 보존개념의 이해가 높은 고연령이 영어학습에 뛰어남.
학습효과와 모국어 수준의 관계	이귀옥, 우남희	2008	모국어 수준, 영어교육 경험과 영어수준의 관계 분석	유치원 만5세반 유아 113명과 부모 87명 대상으로 유아 영어경험 관련 설문지 조사, 모국어 검사, 영어 수준검사 실시	유아의 전체적인 모국어 수준과 영어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과 영어 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음.
학습효과와 영어교육경험의 관계	우남희	2007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과 창의성과의 관계 분석	유치원, 공동육아 어린이집, 영어유아학원 각 1개원에서 선정된 75명의 유아 대상으로 지능, 창의성 발달 정도 검사	영어교육 경험이 많은 영어유아학원의 유아들이 언어창의성 점수가 가장 낮았음.
	신동주	2007	유아기 영어경험이 초1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영어를 1학년때부터 정규과정으로 운영하는 초1 영어시간에 1년간 아동 관찰, 원이민 교사 5명 심층면담	취학전 영어경험은 자신감, 흥미 등에 영향을 미치나, 실제 영어능력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임. 유아기 영어학습 유무에 따른 영어능력 차이도 일정기간 지나면 극복가능한 것으로 보았음.
영어가사교육에 대한	이명조	2005	학부모들의 조기영어교육 필요성	서울 경기 거주 초1~6학년 학부모 484명 대상으로	초등 학부모들의 유아 영어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으며,

인식			인식 분석	조기영어교육의 효율성 인식 조사	초1~2학년 학부모는 영어교육시작시기로 만5세를, 초5~6학년 학부모는 초1을 생각했음.
	조미영, 이문옥	2009	교사의 조기영어교 육 필요성 인식과 교사가 느끼는 문제점 분석	유아대상 교사 10명 대상으로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인식 면접 조사	만3세 이하의 유아는 영어 이해도가 부족하고 어휘력이 발달하지 못하여 외국어습득에 도움이 되기보다 모국에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부정적으로 인식.

1) 학습효과와 연령의 관계

① 우남희 외(2002) : 만 4세와 7세 실험집단 중, 7세의 영어학습 효과가 높았음.

우남희, 서유현, 강영은(2002)은 만 4세와 7세의 두 연령 집단으로 나누어 영어교육을 실시한 후, 그동안 배운 것에 대한 테스트를 하였을 때 두 집단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7세가 월등하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점 92점을 받을 수 있는 검사에서 4세의 평균은 29.9점이었으며 7세의 평균은 60.6점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있는 차이였다. ($t=-4.991$, $p<.001$). 실제 교육현장에서 관찰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적인 학습분위기에서 4세와 7세 아동은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학습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배우려고 주의집중을 하는 7세아들에게 교사가 훨씬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었고, 산만한 4세아들에게는 영어수업 자체보다도 아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산만한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오히려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었다.

② 우남희 외(2004) : 보존개념의 이해가 이루어진 7세의 영어학습 효과가 높았음.

우남희, 김현신(2004)이 4세아와 7세아 집단을 비교해본 결과, 보존개념의 이해가 높은 고연령이 보다 외국어학습에 뛰어났다. 보존개념의 발달이 영어학습의 효과와 상관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 영어학습의 효과는 보존개념의 발달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78$, $p<.01$). 따라서 보존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4세아보다 보존개념의 이해가 많이 이루어진 7세아들에게서 더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어릴수록 외국어를 빨리

리 배운다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이나, 연령이 높은 아동이 외국어학습에서 더 뛰어난 성적을 받았다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같은 결과였다. (Asher, Price, 1965; Olson, Samuels, 1973; Snow, Hoefnagel-Hohle, 1977; Marinova-Todd, Marshall & Snow, 2000)

<그림 23> 아동의 영어학습효과와 지능, 보존개념과의
상관관계

변 인	영어학습	연 령	지 능	보존개념
영어학습	1			
연령	.73**	1		
지능	.27	.03	1	
보존개념	.78**	.68**	.30	1

**P<.01

자료: 우남희 외(2004). 아동의 지능, 보존개념의 발달과 영어학습과의 관계분석

2) 학습효과와 모국어수준의 관계

① 이귀옥 외(2008) : 유아의 모국어수준이 높을수록 영어를 잘함.

이귀옥, 우남희(2008)의 연구에서는 모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유치원 만 5세반 유아 113명과 부모 87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영어수준이 모국어 수준 및 영어경험과 상관이 있는가를 분석했는데, 유아의 전체적인 모국어 수준과 영어 수준과의 상관관계는 ($r=.24, p<.01$)로 정적 상관을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모국어의 하위 변인인 음운 지각, 단어 지각, 통사 지각 중 단어 지각 능력이 높아지면 영어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영어를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4> 모국어 수준과 영어 수준과의 상관관계

모국어 \ 영어	음운 지각	단어 지각	통사 지각	발음	영어 수준
1. 음운 지각	-0.03	0.16	-0.17	0.30 **	0.16
2. 단어 지각	0.27	0.39 **	-0.13	0.15	0.27 **
3. 통사 지각	-0.10	0.19	0.18	0.32 **	0.15
4. 발음	-0.22*	-0.01	-0.13	0.25**	0.55
5. 모국어 수준	-0.11	0.31 **	-0.21*	0.35 **	0.24 **

* $p < 0.05$, ** $p < 0.01$

자료: 이귀옥 외(2008), 유아의 영어수준이 모국어 수준 및 영어경험과 상관이 있는가

또한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과 영어 수준과의 관계를 산출한 결과,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과 영어 수준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25>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과 영어 수준의 상관관계

변 수	영어 수준
1. 영어 교육 시작 시기	-0.07
2. 영어 교육 받은 기간	0.11
3. 주 당 영어 교육 횟수	-0.11
4. 일일 영어 교육 시간	0.27
5. 현재 유치원 이외의 영어 교육 종류	0.12
6. 한 달 영어 교육비용	0.10

자료: 이귀옥 외(2008), 유아의 영어수준이 모국어 수준 및 영어경험과 상관이 있는가

3) 학습효과와 영어교육경험의 관계

① 우남희(2007) : 영어학원 유치부 경험 유아가 언어창의성이 가장 떨어짐.

우남희(2007)는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과 지능, 창의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유치원, 공동육아 어린이집, 영어유아학원 각 1개원으로부터 선정된 57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지능, 창

의성 발달 정도를 검사하였는데, 그 결과 영어교육 경험이 많은 영어유아학원의 유아들이 언어창의성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영어사교육으로 인해, 지적 발달에 큰 역할을 하는 언어창의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림 26> 교육기관에 따른 TTCT 검사 점수 비교

교육기관 \ 검사	언어검사 M(SD)	도형검사 M(SD)
전 체	78.30(16.96)	93.77(19.80)
유치원	74.80(16.99)	80.73(17.24)
영어학원	70.33(15.87)	86.50(16.77)
어린이집	91.67(8.58)	105.93(15.94)
	$\chi^2 = 15.66, p < .001$	$F = 8.89, p < .01$

자료: 우남희(2006). 유아의 창의성과 조기 영어교육의 관계 분석

② 신동주(2007) : 초1 교실에서 취학전 영어학습 경험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신동주(2007)는 영어를 1학년때부터 정규교과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영어 시간에 1년간 아동을 관찰하고, 원어민 영어교사 5명을 심층면담하여 유아기 영어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학습 경험은 영어시간에 보이는 아동들의 자신감, 흥미 등의 정의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인 영어능력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았다. 초등학교 입학 이전 오랫동안 영어를 학습한 아동도 의사 표현을 어려워했으며, 듣고 이해하는 것도 이전에 구체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 상황(context)이 재현되었을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했다. 유아기 영어학습 유무에 따른 영어능력의 차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4) 영어사교육에 대한 인식

① 이명조(2005) :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일수록 조기영어교육 필요성을 낮게 인식함.

이명조(2005)는 실제 아이를 키워본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일수록 조기영어교육 필요성에 대해 낮게 인식한다고 보았다.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6학년 부모 484명

을 대상으로 조기영어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인데,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의 영어교육 관심도는 매우 높았지만 유아기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아이가 6학년인 학부모는 아이가 1, 2학년인 학부모보다 유아기 영어교육 필요성을 낮게 인식했다.

<그림 27> 아이의 학년별 유아기 영어교육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도

학년	N	M	SD	df	F	P	Duncan Grouping					
							A	B	C	D	E	F
초등 1(A)	68	3.62	0.91									*
초등 2(B)	93	3.67	0.85								*	*
초등 3(C)	101	3.47	0.77									
초등 4(D)	85	3.53	0.98	5	2.491	0.03						
초등 5(E)	60	3.32	1.02						*			
초등 6(F)	77	3.26	0.91				*	*				
계	484	3.49	0.91									

* : 본 그룹이 타 그룹과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 $p < .05$

자료: 이명조(2005), 조기영어교육 효율성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인식 연구

또한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는 아이의 현재 영어실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영어시작 연령’ 등 보다는 ‘아이의 흥미’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으며,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는 영어교육 시작 시기를 만 5세가 적합하다고 본 반면, 초등학교 5, 6학년 학부모는 초등학교 1학년때 영어를 시작해도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28> 아이의 학년별 적합한 영어학습 시작시기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차이

	N	M	SD	df	F	P	Duncan Grouping					
							A	B	C	D	E	F
초등 1(A)	68	4.94	1.66	5	4.19	0.001**					*	*
초등 2(B)	93	4.99	1.64								*	*
초등 3(C)	101	5.41	1.48									
초등 4(D)	85	5.46	1.52									
초등 5(E)	60	5.88	1.55				*	*				
초등 6(F)	77	5.74	1.71				*	*				
계	484	5.38	1.62									

* : 본 그룹이 타 그룹과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 $p < .01$

자료: 이명조(2005), 조기영어교육 효율성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인식 연구

② 조미영 외(2009) : 교사들은 조기영어교의 문제로 모국어 습득의 혼란 등을 언급함.

조미영, 이문옥(2009)이 유아대상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교사들이 느끼는 조기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조망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현재 근무하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영어교육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만 3세 이하의 어린 연령의 유아들은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어휘력이 발달하지 못하여 외국어습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모국어에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어교육을 통하여 종종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 교사들은 부모들의 모국어 습득의 혼란, 영어교육으로 인한 유아교육시간의 감소 등을 들었다.

위에서 언급한 조기영어교육의 학습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연구들과 달리,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연구들은 조기 영어교육이 영어 유창성, 학습 성취도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서현아, 최미현, 좌승화, 천희영(2003)에 의하면 취학전 영어사교육을 받은 아동은 초등학교 3학년에 영어유창성에서 상위집단에 속한 빈도가 높다고 밝혔으며, 박선웅(2007)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중 영어인증제 평가를 실시해보니 영어교육 시작연령이 낮을수록 성적이 높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공교육에서 영어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이나, 그보다 한해 뒤인 초등학교 4학년에 효과를 분석한 것이기에, 이전에 덜 배운 아동이 많이 배운 아동보다 점수가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사교육시장에는 ‘늦게 배우기 시작한 애들이 금방 따라잡는다’ .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그 이후가 되면 영어학원 유치부에서 배운 애들과 초등학교 이후에 영어를 배운 애들이 학원의 한 반에서 같이 공부하게 된다’ 는 등의 통설이 있다. 이러한 통설을 검증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영어사교육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3, 4학년이 아니라 그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남희 외, 2009)

2. 영유아 영어사교육이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1) 영유아 영어사교육이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의 영어사교육은 유아의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아의 스트레스, 불안감, 공격성 등 조기사교육으로 인한 정서적 영향에 관한 여러 연구들(‘Ⅲ. 2. 전반적 영유아사교육의 정서적 발달 영향’ 참고)은 조기영어교육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될 수 있으며, 특별히 조기영어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의 스트레스 문제에 한정하여 진행한 연구도 존재한다.

① 김형재(2011) : 전일제 영어교육 유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이 높았음.

김형재(2011)는 영어학원 유치부에 다니는 유아와 시간제 영어학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을 듣는 5, 7세 유아 총 100명을 대상으로, 조기영어교육 경험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5, 7세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전일제 영어교육 유아가 시간제 영어교육 유아보다 높았으며 두 집단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난 공격 상황에 처함, 불안 좌절감 경험함, 자존감 상함 모든 영역에서 전일제 영어교육 유아가 높았지만, 특히 좌절감 경험함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림 29> 조기영어교육 경험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차이

(N=115)

구 분		전일제 영어교육 유아			시간제 영어교육 유아			t
		N	M	SD	N	M	SD	
5세	비난·공격 상황에 접함	23	1.27	.70	52	.85	.80	2.14*
	불안·좌절감 경험함	23	.67	.60	52	.51	.41	1.16
	자존감 상함	23	.46	.42	52	.26	.35	2.14*
	전체	23	.75	.49	52	.52	.38	2.16*
7세	비난·공격 상황에 접함	20	1.33	.67	20	1.10	.94	.89
	불안·좌절감 경험함	20	.90	.50	20	.64	.46	1.67
	자존감 상함	20	.72	.55	20	.30	.37	2.81**
	전체	20	.94	.42	20	.65	.45	2.14*
전체	비난·공격 상황에 접함	43	1.30	.68	72	.92	.84	2.48*
	불안·좌절감 경험함	43	.78	.56	72	.55	.42	2.29*
	자존감 상함	43	.58	.50	72	.27	.36	3.57**
	전체	43	.84	.46	72	.56	.40	3.43**

* $p<.05$, ** $p<.01$

자료: 김형재(2011). 조기영어교육 경험에 따른 유아의 한국어 어휘력, 실행기능,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의 차이

조기영어교육 경험에 따라 문제행동은 5, 7세 유아 모두 전일제 영어교육 유아가 시간제 영어교육 유아보다 높았고,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현화 문제는 전일제 영어교육 유아가 시간제 영어교육 유아보다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재화 문제는 전일제 영어교육 유아가 시간제 영어교육 유아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어, 차이는 외현화 문제에서보다 내재화 문제에서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0> 조기영어교육 경험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

(N=115)

구 분			전일제 영어교육 유아			시간제 영어교육 유아			t
			N	M	SD	N	M	SD	
5세	내재화 문제	위축	23	1.39	1.95	52	.50	.83	2.11*
		신체증상	23	.35	.65	52	.35	.84	.01
		우울-불안	23	1.78	2.11	52	1.15	1.29	1.32
	외현화 문제	전체	23	3.52	3.55	52	2.00	2.39	2.18*
		공격성	23	4.35	2.79	52	4.33	3.02	.03
전체 문제행동		23	12.00	8.36	52	8.27	6.30	2.13*	
7세	내재화 문제	위축	20	1.75	1.83	20	.80	.95	2.06*
		신체증상	20	1.35	1.18	20	.45	1.00	2.60*
		우울-불안	20	2.75	2.12	20	1.25	1.16	2.77*
	외현화 문제	전체	20	5.85	3.83	20	2.50	1.85	3.52**
		공격성	20	5.40	2.82	20	5.20	3.82	.19
전체 문제행동		20	16.35	8.55	20	11.30	6.88	2.06*	
전체	내재화 문제	위축	43	1.56	1.88	72	.58	.87	3.20**
		신체증상	43	.81	1.05	72	.38	.88	2.30*
		우울-불안	43	2.23	2.15	72	1.18	1.25	2.93**
	외현화 문제	전체	43	4.60	3.82	72	2.14	2.25	3.85***
		공격성	43	4.84	2.82	72	4.57	3.26	.49
전체 문제행동		43	14.02	8.63	72	9.11	6.56	3.22**	

* $p<.05$, ** $p<.01$, *** $p<.001$

자료: 김형재(2011). 조기영어교육 경험에 따른 유아의 한국어 어휘력, 실행기능,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의 차이

2) 영유아 영어사교육이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또한 영유아의 영어사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발달의 영향도 존재한다. 영유아의 영어사교육의 영향으로 여러 연구자들은 외국어교육으로 인한 민족적 자아개념 상실의 문제를 지적한다. 즉, 조기 영어교육은 국어와 나라 사랑의 망각, 영어 문화권의 식민지화, 미국 편향 가속화 등으로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조기외국어학습과 함께 아동들이 외국문화를 물밀 듯이 받아들여 민족 생명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이계순, 1983; 양미라, 1991; 이완기, 1994) 이에 대해 최지영(2008)은 만5세 유아 60명의 자아개념검사를 실시한 결과 민족적 자아를 포함한 모든 자아개념의 형성 정도가 영어교육의 실시 유무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주장한 바 있으나,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학습 경험이 아동의 자신감이나 흥미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신동주, 2007; 박영예·송정비, 2000; 이성옥, 2002 등)도 존재한다. 박영예와 송정비(2000)는 조기 영어교육이 유아의 지적 발달과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성옥(2002)은 유치원 이전에 영어를 시작한 아동들이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시작한 아동보다 영어에 대한 선호도와 자신감을 더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나 부모들에게 만족도나 효과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한 결과로 실제적으로 조기교육의 효과를 검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에 영어가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서적, 사회적 발달 영향에 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우남희 외, 2009 재인용)

V. 논의 및 결론

본 발제문에서는 영유아사교육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한 연구를 주로 검토했다. 그러나 영유아사교육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한 연구(이명조, 1995; 이옥, 1997; 우남희 외, 2005 등)도 존재한다. 이옥(1997)의 연구에서는 유아기의 조기의 예술교육경험은 아동기의 창의성 발달에 어느정도 기여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남희 외(2005)의 연구에서도 조기사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유아들이 학습요령을 잘 터득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영유아사교육은 대상이 영유아를 중심에 두지 않고 사회의 관점이나 어머니의 관점에 의해서 선택되고 강제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명순, 2007)

영유아사교육의 학습효과나 정서적, 사회적 영향에 관련한 국내의 연구들은 영유아사교육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관심에 비한다면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다. 사교육시장은 결정적 시기 이론, 뇌기반학습,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등 최근 논의된 교육학 이론을 발빠르게 수용하고 ‘빠를수록 좋다’는 가설을 유포하며 영유아사교육의 지형을 확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학문적 논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영유아사교육의 영향과 관련해 다양한 실천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영유아사교육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이 설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모들은 교사보다 영유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기교육을 시키고 있는 당사자들로서 그 영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영유아가 설문지에 응답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부모나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원장 등의 성인이 응답해야 한다면, 부모 외에도 교사나 원장 등의 관찰 결과나 인식 등이 반영된 연구가 추후 더 많이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영유아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의 경우 3~4학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효과에 대한 검증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학원가에서는 ‘영어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한 아이는 한창 공부해야할 나이에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비밀처럼 떠돌기도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영유아사교육으로 인한 중고등학교 단계, 혹은 대학 이후의 학업성취도나 학업흥미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셋째, 영유아사교육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질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영유아사교육의 정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단순한 설문지를 통한 검사로 검증하기에는 인간 심리의 복잡한 측면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사교육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영유아사교육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로서 자신감이나 흥미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신감이나 흥미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신감이 진정한 의미의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인정욕구에 의한 자기과시적 자신감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우남희외, 2005), 흥미가 더 많이 배웠다는 안도에서 온, 그러나 구체적 깨달음과는 관계가 없는 흥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장기간에 걸친 참여관찰, 면접 등 심도깊은 질적 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정윤(2007). 조기 특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양육 스트레스 및 유아의 문제행동.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2), 1-19.
- 김형재(2011). 조기영어교육 경험에 따른 유아의 한국어 어휘력, 실행기능,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의 차이, 박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 박선웅(2007), 조기 영어교육기간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영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영양·이성희(2004), 유아의 과외참여 현황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4(2), 175-196.
- 박영예·송정미(2000), 유치원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외국어교육학회, 7(2).
- 배점옥(2004), 유아교육기관 유형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혜정·김현신·우남희(2005). 조기사교육 경험이 있는 유아들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 영유아보육학, 43, 23-43.
- 서문희, 양미선(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1-11.
- 서현아·최미현·좌승화·천희영(2003), 취학전·후 영어교육 환경과 초등학교 3학년의 영어 유창성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4), 299-319.
- 송정은·전덕인·석정호·홍나래·김영신·홍현주(2010), 사교육 시간에 따른 외현화 문제와 내면화 문제의 성별 차이,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1(1), 37-44.
- 신동주(2007), 유아기 영어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1(2), 349-374.
- 신의진·이경숙(2004), 과잉조기 인지교육이 유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로 인한 유아의 영상과다시청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연구 2004-9, 교육인적자원부
- 우남희(2004). 아동의 권리와 한국의 조기교육. 한국아동권리학회, 8(2), 189-207.
- 우남희(2005). 우리나라의 유아대상 조기교육 확산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 생활과학연구, 10, 161-173.
- 우남희(2006). 유아의 창의성과 조기 영어교육의 관계 분석. 생활과학연구, 11, 126-133.

- 우남희·김영심·이은정·김현신(2009). 저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한국 어머니들의 인식 및 실태 조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297-325.
- 우남희·김유미·신은수(2009). 조기교육/사교육, 아동학회지, 30(6).
- 우남희·김현신(2004). 아동의 지능, 보존개념의 발달과 영어학습과의 관계분석. 아동학회지, 25(1), 1-12.
- 우남희·김현신(2004). 한국 조기교육의 과거와 현재. 생활과학연구, 9, 169-180.
- 우남희·백혜정·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분석 :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5-24.
- 우남희·서유현·강영은(2002). 영유아에 대한 조기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 정책연구과제 2002-16. 교육인적자원부
- 우남희·이종희(1996). 영어교육 조기화의 문제점 분석. 응용언어학, 9-10, 137-152.
- 우남희·현은자·이종희(1992a). 사설학원 및 가정 중심의 조기 특기/과외교육 실태 연구. 조기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63-85.
- 우남희·현은자·이종희(1992b). 사설학원 및 가정중심의 조기 교육 실태 연구. 유아교육연구, 13, 49-64.
- 이기숙·김순환·김민정(2011). 유아기의 기본적인 언어능력이 초등학교 1학년 국어 학력과 어휘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1(5), 299-322
- 이기숙·김순환·정종원·김민정(2013). 만5세 읽기능력, 어휘력 및 개인·환경 변인에 따른 초등학교 3학년 읽기이해능력과 어휘력, 유아교육연구, 33(4), 363-384.
-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2002).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 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3), 153-171.
- 이귀옥·우남희(2008). 유아의 영어수준이 모국어 수준 및 영어경험과 상관이 있는가, 이중언어학, 38.
- 이명순(2007). 유아조기교육의 허와 실, 한국교육인류학회·안암교육학회
- 이명조(2005). 조기영어교육 효율성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인식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3), 107-127.
- 이부미·이수정(2010). 조기교육: 불안한 부모와 바쁜 아이들, 시민인문학 제18호,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85-107.
- 이성옥(2002).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육에 나타난 조기 영어교육의 영향, 석사학위 논문, 춘천교대 교육대학원
- 이영춘(1999). 취학전 교육경험이 초등학교 아동의 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 이혜원(2002), 조기영어교육이 초등학생의 영어에 대한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전예화(2003). 영어교육 어릴수록 효과적인가?. 유아교육연구, 23(3), 285-305.
- 조미영·이문옥(2009), 유아기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인식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6(1), 25-31.
- 차성현·김순남·김자경·박선옥·전경원·민병철·최보운(2010), 유아사교육 실태 및 영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최영애(1994),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취학전교육과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 아동교육, 4(2)
- 최옥희·김영호·김용미(2009),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취학전 교육경험에 따른 학교 적응, 학업 성취의 차이에 관한 연구, 18(4), 261-276.
- 최지영(2008), 조기영어교육이 유아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12(2), 189-214.
- 최지영·양현주(2012), 취학전 교육기관 유형과 아동의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초기 적응 비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2), 265-286.
- 홍은자(2001) 어머니 성취압력과 학원 학습지 이용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 제2발제

영유아에서 지나친 인지학습의 정신의학적 영향

홍현주(한림대성심병원 교수)

영유아에서 지나친 인지학습의 정신의학적 영향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
홍 현 주

사교육/인지 학습

- 학교 및 정규 수업 외 각 가정에서 부담해서 제공하는 학습
- 종류: 학원, 과외, 온라인 수업 등
- 과목: 국, 영, 수, 논술, 예체능 등
 - 인지적인 측면이 강조됨.
- 목표: 좋은 대학 입학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

1. 인지적, 언어적, 신체적, 감정적, 관계적 자극이 필요 => 균형적인 뇌발달
2. 일상적인 인지 발달: 유치원 교육으로 충분함.
3. 오랫동안 보육시설에 머무르는 경우, 아동기 이후의 행동문제(예: 공격성)와 관련성이 있음.
4. 영유아기의 적절한 환경적인 자극: 인지, 운동, 언어, 사회성, 부모와의 관계 증진

Mental Health and Extracurricular Education in Korean First Graders: A School-Based Cross-Sectional Study

Hyun Ju Hong, MD, PhD; Young Shin Kim, MD, MPH, PhD;
Duk-In Jun, MD, PhD; Jeong Ho Seok, MD, PhD; Naree Hong, MD, PhD;
Jill M. Harvavy-Friedman, PhD; Ann M. Miller, MD, PhD; and Laurence L. Greenhill, MD

Objective: This study explores the results of mental health screening in Korean first graders in association with the amount of time the children spent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Method: The study included a community sample of 761 boys and girls, with a mean age of 6.6 years, collected from 1 elementary schools in Gwangju, South Korea, in July 2007. Primary caregivers completed a questionnaire that included information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amount of time the children spent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and other activities, and an adapted form of the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 Second Edition (BASC-2) as screen for mental health problems.

Results: These first graders spent a mean of a little over 2 hours each day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Extracurricular education demonstrat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4 BASC-2 domains, including hyperactivity ($r=0.092$, $P=.05$), aggression ($r=0.073$, $P=.05$), conduct problems ($r=0.073$, $P=.05$) and depression ($r=0.137$, $P=.01$). A positiv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extracurricular education was also evident in regression analyses ($F=2.25$, $R^2=0.021$, $P=.081$). The relationship held true even when controlling for time spent with parents, time spent with friends, and time spent asleep. Post hoc analyses revealed that children receiving more than 4 hours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per day showed a sharp increase in depressive symptoms as well as a decrease in the amount of time spent with caregivers.

Conclusions: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excessive amounts of time spent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greater than 4 hours per day) may be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These findings have relevance for mental health screening and educational policy.

J Child Psychiatry
© Copyright 2011 Physicians Postgraduate Press, Inc.

Submitted: December 12, 2009; accepted: June 14, 2010.
Online ahead of print: February 9, 2011 (doi:10.1093/ptnp/ptq016).
Corresponding author: Hyun Ju Hong,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Hallym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20 Haeinsa-dong, Pungnam-gu, Gangwon-do, Gangneung-si, Gangwon-do, Korea.
hongju@hallym.ac.kr

© Copyright 2011 Physicians Postgraduate Press, Inc. Copyright © 2011 Physicians Postgraduate Press, Inc.

Worldwide, academic activities prove to be a major source of stress¹⁻⁴ for even the youngest of school-aged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placed a premium on achievement in reading and math, resulting in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academic drilling and testing in elementary school programming.⁵ Reports from the United Kingdom suggest that parents and schools have a tendency to place academic pressure on children to the extent that some youngsters come to describe their experience with formal education mainly as painful.⁶ Children across East Asia attend school in a fiercely competitive system in which educational promotion is based on rank, and stress related to academic achievement has been reported from as early as the elementary school period.⁷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mental health has been studied cross-nationally. In a Swiss study, the degree of school pressure self-reported by children on a symptom checklist demonstrated a positive linear association with the severity of depression.⁸ In other surveys, Asian students were found to be very likely to report anxiety, depressive symptoms, and a sense of being overburdened by the pressure to achieve academic excellence.⁹ Stressful life events are key risk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children,^{10,11} and these and other studies suggest that academic stress might qualify as some circumstances as a risk factor for psychopathology from the youngest of school-aged children.

South Korea in particular is known for the rigor of its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programs. More than 80% of high school graduates go on to college,¹² and academic success has been linked to improvement in the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Koreans in general.¹³ In the last decade, extracurricular education meant to supplement school curricula for the purpose of boosting academic success has become commonplace and is considered by many families to be an essential part of their children's education.¹⁴⁻¹⁶ In 2006, private spending on extracurricular education totaled 2.9% of South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and made Korea the highest payer for extracurricular education among the 31 member countries of the Franco-base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¹⁷

There are several forms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in South Korea, including the *hagwon*, which denotes a for-profit program specializing in intensive test preparation (a " cram school"). Extracurricular education is also conducted through private tutoring, extended-day schools, and

Figure 1. Percentage of Korean First Graders With Depressive Symptoms by Time Spent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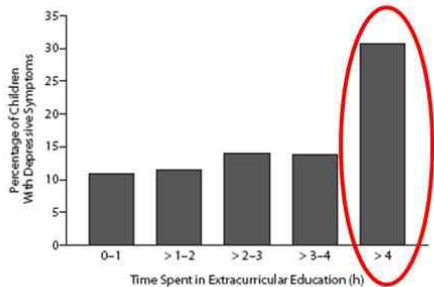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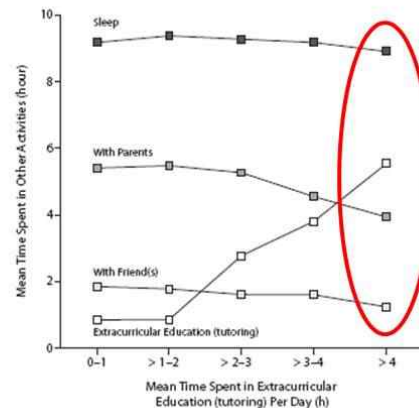


Figure 2.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Spent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Time Spent With Parents, Time Spent With Friends, and Time Asleep in Korean First Graders



사교육과 공격성 (Dream Start 2009)
저소득층 아동 (평균 연령: 10.2세)
평가 척도: CBCL

1.	1. 부모와 보내는 시간(시간/일)	1. 친구와 보내는 시간(시간/일)	1. 사교육 시간(시간/일)	1. 학습관련 사교육(시간/주)	1. 비학습관련 사교육(시간/주)
내재화	-0.227*	-0.127	0.005	0.038	0.063
외현화	-0.191*	0.117	0.150	0.188*	0.031
문제행동	-0.241*	-0.023	0.068	0.112	0.078
위축	-0.166	-0.200*	0.055	0.045	0.133
우울불안	-0.303**	-0.046	0.042	0.082	0.014
주의집중문제	-0.189*	-0.038	-0.036	0.046	0.107
비행	-0.223*	0.160	0.004	0.102	0.031
공격성	-0.170	0.092	0.188*	0.205*	0.014

* p<0.05, ** p<0.05 by Spearman correlation test

인지 학습과 정신건강 (2010 추적 60분)

- 충남의 한 초등학교 (N=33)
- 목동의 한 초등학교 (N=66)
- 평가 도구: CBCL, CDI
- 초등학교 2,3학년
- 사교육의 분류
 - 1) 국영수 : 학원, 과외, 학습지
 - 2) 기타 인지 관련: 논술,한자,영재,과학,중국어
 - 3) 예체능

	충남	목동	기타(5명)
사교육 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	26.1% (분포;0-1365)	0 (분포;180-1440)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 분 단위 (표준편차)	<u>7시간</u> 417.6(270.3)	<u>13시간</u> 766.8 (284.9)	<u>21시간 40분</u> 1300 (277.5)
주당 국영수 사교육 시간, 분 단위(표준편차)	<u>1시간 50분</u> 112.0 (153.7)	<u>5시간 10분</u> 313.3 (219.5)	<u>8시간 40분</u> 524.0 (198.8)
인지 관련 사교육시간 분 단위(표준편차)	52분 51.5 (94.6)	3시간 181.2(213.8)	2시간 40분 156.7 (100.2)
예체능 사교육시간 분 단위(표준편차)	4시간 10분 254.1(205.8)	4시간 20분 258.8(195.4)	9시간 20분 566.0(272.8)
하루 평균 집에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	<u>15시간</u> 903.2(159.0)	<u>14시간 30분</u> 873.6(130.0)	<u>10시간</u> 600.0(343.8)
하루 평균 수면시간 분단위(표준편차)	8시간 53분 533.6(38.8)	8시간 45분 524.8(40.6)	8시간 30분 510(21.2)

	충남(1)	목동(2)	기타(3)	
내재화*	48.1 (6.1)	43.8 (8.5)	59.9(11.6)	3>1>2
외현화*	49.7 (5.6)	45.1 (8.0)	53.9(7.6)	3,1>2
총문제*	48.5 (5.4)	43.5 (8.6)	56.6 (10.2)	3>1>2
위축*	50.3 (5.7)	47.5(7.9)	56.4 (9.1)	3>1,2
신체증상*	46.1 (5.4)	45.6 (6.0)	58.6 (9.5)	3>1,2
우울/불안*	49.6 (8.5)	44.3 (7.6)	59.7 (7.4)	3>1>2
미성숙*	48.6(8.1)	46.1 (7.5)	56.7 (7.4)	3>1,2
부주의성	47.2 (7.9)	46.2 (8.0)	54.1 (11.4)	3>1,2
공격성*	50.2 (5.5)	45.4 (7.8)	54.0 (8.0)	3,1>2
CDI	11.4 (6.6)	9.7 (6.0)	13.7 (6.3)	

인지적 사교육 시간과 공격성 (목운초)

1. 상관 분석

- 국영수 사교육 시간과 공격성 점수 : $r=0.269, p=0.029$
- 국영수 사교육 시간과 외현화 점수 : $r=0.291, p=0.018$

2. 회귀 분석 : 국영수 사교육 시간과 공격성

- 변수: 성, 사회 경제적 수준 상태, 전체 사교육 시간, 비학습 사교육, 부모의 직업

- 의미있는 예측인자: 국영수 사교육 시간

- Adjusted R square: 0.052, B=0.009,
beta: 0.26, $p=0.041$

요약

1.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발달시기에 따른 적절한 환경 제공이 필수적이다.
2. 지나친 인지적 자극은 우울과 공격성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뇌발달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3. 영유아기에는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관계적 등 다양한 자극이 필요하며 특히,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적 자극은 필수적이다.

■ 제1논찬

영유아의 학습효과와 정서적 · 사회적 발달 영향에 대한 논의

이부미(경기대 유아교육과 교수)

■ 제2논찬

영유아 사교육에 담긴 담론, 그리고 대안을 모색한다.

박진균(소아 정신과 전문의)

먼저 발제를 맡아 발표하신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으로 논찬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영유아 사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 평가에서 국어 및 수학 성적에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으며, 오히려 선생님들의 평가에서 사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한다” 라는 등의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격성’ 등의 외향성 장애가 증가하고, 홍현주 선생님의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발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만 두고 본다면, 유아 사교육은 별 쓸모는 없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망치는 주범이라 해야 할 것이며, 사교육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통념적인 생각들은 그리 간단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념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만들어지는 존재이다. 또한 무조건 많이 배울수록 훌륭한 사람이 된다’ 라는 생각이 부모들의 마음속에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면 된다’는 단순한 성공주의와 결부되며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구한말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전국가적으로 폐허에서 다시 시작하는 전복적인 경험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배움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겪고 또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들을 잘 들여다보면 허구적인 면들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먼저, 사람(아이)

은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만들어지는 수동적인 조각품 혹은 빈 도화지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과 성격적 바탕인 기질을 지닌 채 세상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 한다고 해도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가 바라는 성격으로 다듬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노력을 통해 아이의 발전을 꾀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아이의 타고난 재능과 기질에 대한 고려가 없는 교육은 자원의 낭비와 아이의 정서적 아픔을 유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최신 뇌과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믿음이 있습니다. 즉, ‘아동의 뇌는 5세까지 80% 완성되므로 이 시기에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 혹은 ‘유아는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이므로, 이 시기를 놓치면 이중 언어 교육은 늦다’ 와 같은 담론입니다. 역사적으로 최신 과학은 초기에 대중에게 노출되면서 많은 오해와 부작용을 낳곤 했습니다. 퀴리 부부가 방사능을 처음 발견하고 추출할 무렵, 유럽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기적의 신약’ 이나 되는 것처럼 대중에게 소개되어 많은 피폭자들과 질병을 유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신 뇌과학도 여전히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 많고, 일반에 적용되기에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한때 ‘모짜르트 이펙트’ 라고 해서 영유아에게 모짜르트 음악을 많이 들려주면 수학적 능력이 향상된다는 담론이 퍼졌지만, 얼마 안 가서 자취를 감추었던 사례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현재 세계 도움이 되는 최신 뇌과학이라고 하면, 임신 중에 술, 담배를 안하는 것과 엽산을 포함한 적절한 식사 및 지속적인 운동을 해주는 것이 태아의 뇌발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며, 과도한 태교는 오히려 산모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탄생 이후로 만 5세 까지의 시기에 뇌의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자극을 주어야 더 나은 뇌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과학적 답변은 없습니다. 인류가 홍적세로부터 인간으로 진화해 온 그 몇 만 년의 시간 동안에 아동 양육을 위해 본능적으로 해 온 것들이 그리 부족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새로운 자극을 더 많이 주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이것은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현대와 같은 ‘초경쟁 사회’에서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경쟁에서 앞서나가야 한다는 초조함이 부모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영유아 사교육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는 이런 부모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혹은 2-3개월 안에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적을 보여서 앞서 가는 경험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 사교육을 시키는 주요한 유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에게는 수 년 후에는 지금의 사교육이 별 효과가 없다는 말이 지금의 사교육을 그만두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읽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야구장 스탠드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탠드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경기를 더 잘 보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뒤에 앉은 사람은 경기를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스탠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내내 불편하게 경기를 관람해야 하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모두가 불편하게 일어서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모두가 앉는다면 모두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상 몇 가지 사교육을 조장하는 대중의 생각들에 대해서 논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시겠지만, 예체능을 포함한 적절한 정도의 사교육은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더 많으며, 사실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에게는 적절한 수준의 사교육이 부족한 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사교육이 어느 정도 돌봄 서비스의 대체제로 활용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고 과도한 유아 사교육은 득(得)은 별로 없고 실(失)이 많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리한 사교육을 사회적으로 지양해 가려는 노력에는 앞서 제기한 ‘하면 된다’식의 가족 이기주의적 성공주의 신화의 허구성을 홍보하는 노력이나, 최신 뇌과학에 대한 문제점을 잘 따져보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탠드의 역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전 5공화국 시절에는 국가에서 모든 사교육을 금지시키는 ‘위로부터의 통제’로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이 나서서, “거 앞자리에 서 있는 사람, 좀 앉읍시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통제 노력이 21세기에 맞는 더 타당한 해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그런 용기 있는 나팔수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 제3논찬

영유아의 학습효과와 정서적 · 사회적 발달 영향에 대한 논의

노성임(푸른미래언어치료센터 원장)

■ 종합 토론

■ '영유아사교육 문제 해결' 위한 조사연구 11회 연속토론회 일정

기 간	주 제	토 론	내용
6차 토론회 9/24(화) 오후 3시	유치원, 어린이집의 누리과정과 특별활동 수학 내용의 초등 선 행 여부를 살핀다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발제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	논찬
		장혜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논찬
		이정옥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논찬
		정연숙 (서울 하늘초등학교 교사)	논찬
7차 토론회 10/1(화) 오후3시	영유아 사교육 유발요 인 분석: 사립초등학교 의 비교육적 영어 교육 의 실태를 살핀다	박민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발제
		이병민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논찬
		장주미 (초등학교 교사)	논찬
		이진화 (교육부 영어교육팀 사무관)	논찬
8차토론회 10/29(화) 오후2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 과정의 교육과정과 재 정지원 현황을 살핀다.	김은주(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발제
		최은영(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연구팀 팀장)	발제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논찬
		최정은(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논찬
		장미순(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논찬
9차 토론회 11/13(수) 저녁7시	영유아사교육의 학습효과와 정서적·사회적 발달 영향을 살핀다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발제
		홍현주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	발제
		노성임 (푸른미래 언어치료센터 원장)	논찬
		박진균 (소아정신과 전문의)	논찬
		이부미(경기대 유아교육과 교수)	논찬
10차 토론회 11/26(화) 오후2시	영유아 사교육 유발요인 분석: 언론, 잡지, 인터넷 등...	박민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발제
		전홍주 (배재대 유아교육과 교수)	발제
		염지숙 (건국대 글로벌캠 유아교육과 교수)	논찬
		교육부 관계자	논찬
		추후 발표	논찬
11차토론회 12/10(화) 오후2시	사교육 상품의 주요 교육 가설 타당성 분석 점검 (프뢰벨, 몬테소리,가드너 등)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발제
		이슬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발제
		교육부 관계자	논찬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논찬
		어린이집 원장	논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공식카페: www.noworry.kr 전화 : 02-797-4044~6 팩스 : 02-797-4484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메일: noworry@noworry.kr